



베리사인, 자국어 도메인(IDN)으로 영어의 인터넷 지배력 허물어

**한국의 2,700 만 인터넷 사용자,
한글 도메인을 이용한 웹 항해와 이메일 송신 가능해져**

2003년 1월 14일 서울 - 세계적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은 오늘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한글로 웹 항해와 이메일 송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 내비게이션(Web-based Navigation)과 i-Nav™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등 2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 2 가지 서비스는 비영어 문자들을 이용해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 자국어 도메인(IDN)의 세계적인 이용과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자들이 닷컴(.com)과 닷넷(.net)으로 끝나는 도메인을 한글을 비롯한 350 가지 다른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베리사인은 또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및 LGIBM 과 i-Nav 소프트웨어 배포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의 2,700 만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i-Nav 소프트웨어가 즉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베리사인의 웹 기반 내비게이션과 i-Nav 플러그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 도메인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고, 인터넷 항해를 한글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레졸루션(resolution)이 끝나면 사용자들은 앞으로 그 도메인을 계속 한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북마크 해놓을 수도 있다.

웹 기반 내비게이션은 베리사인이 관리하는 세계 13 개 DNS 서버 로케이션에 설치되었으며,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어디서나 어떤 언어로든 .com 과 .net 도메인을 항해할 수 있게 해준다. 웹 기반 내비게이션과 짝을 이루는 i-Nav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같은 유명 브라우저 프로그램들, 또 아웃룩(Outlook)과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 같은 이메일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완벽한 다국어 경험을 제공한다. i-Nav 는 현재 .com, .net 과 기타 국제 도메인들 뿐만 아니라 .kr, .jp 같은 최상위 도메인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모든 국가 도메인들(ccTLDs)과 최상위 도메인들(gTLDs)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스티 루이스(Rusty Lewis) 베리사인 글로벌 레지스트리 서비스 (VeriSign Global

Registry Services) 운영 부사장은 “우리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경험을 향상시켜, 그들에게 자국어로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었다” 며 “언어는 더 이상 글로벌 인터넷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리고 베리사인은 한국 업체들과의 돈독한 파트너십으로 우리의 기술 발표를 뒷받침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이용이 급성장하고 있다. 2002 년 가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5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제자리에 머물기 시작했다. 입소스-레이드 스터디(Ipsos-Reid Study)가 발표한(2001. 5. 21) “웹의 얼굴(The Face of the Web)” 이라는 제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를 중심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10 명 중 9 명은 자국어를 이용한 로컬 정보 획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IDN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IBM은 올 1 사분기부터 i-Nav 소프트웨어 배포에 나선다. 이홍규 LG-IBM 상품기획팀 부장은 “i-Nav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기대가 크다” 며 “i-Nav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에게 완벽한 다국어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들이 인터넷의 모든 혜택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고 말했다.

한국의 도메인 등록기관(레지스트리)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도 한국어로 닷케이아르(.kr) 도메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2003년에 i-Nav 플러그인을 배포하게 되며, IDN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기술교환을 통해 베리사인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KRNIC는 또한 .kr, .com, .net 다국어 도메인을 지원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배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송관호 KRNIC 원장은 “IDN은 인터넷 사용자의 모국어로 인터넷 아이덴티티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국어 도메인 이용 서비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의 대중화와 발전을 가속화 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i-Nav 소프트웨어는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설치될 수 있다. 일단 설치되면 모든 IDN들이 사용자 시스템에 리졸브(resolve) 된다. 사용자들은 www.idnnow.com 을 방문하여 무료로 i-Nav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 사이트는 베리사인이 사용자들을 교육시키고 IDN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사이트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그리스어, 헤브루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i-Nav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있으며 IDN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베리사인은 또 2003년 2월까지 이 웹 사이트를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불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 만 개 이상의 IDN이 등록되었는데 중국어, 일본어, 한글 IDN의 인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40 개 IDN 공인 등록 대행사(레지스트라)들 또한 IDN의 신규 등록을 프로모션하고 있다.

LGIBM에 대해

LGIBM PC는 1996년 11월 22일 IBM과 LG 전자가 한국 최고의 PC 업체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각 51%와 49%의 지분으로 공동 설립하였다. 이후 IBM과 LG 전자의 기

술들을 결합한 혁명적인 제품과 차별화 된 서비스들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향상된 IT 환경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들을 통해 한국의 기반기술 형성 강화 노력을 주도해오고 있다. <http://www.lgibm.co.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대해

KRNIC는 최상위 도메인 .KR을 관리하고, 로컬 ISP들에게 IP 주소를 할당하며, 인터넷 관련 통계정보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의 급속한 광대역 인터넷 접속 확산과 인터넷 사용자 수 급증에 힘입어 KRNIC의 관리를 받는 도메인 수도 급증해왔다.

베리사인(VeriSign)에 대해

베리사인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상거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리사인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하루 수십억 건의 네트워크 접속과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토대로 웹 프레즌스 서비스, 통신 서비스, 보안 서비스, 지불 서비스 등 4대 핵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상거래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베리사인에 대한 추가 정보와 뉴스는 www.verisign.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베리사인 PR: 이재철, peter.lee@ogilvy.com, +82-2-3468-2943
Aparna Choudhari, achoudhari@appliedcom.com,
+1-415-365-0222

베리사인 IR: Steven Gatoff, sgatoff@verisign.com, +1-650-426-4560

LGIBM: 이흥규, hglee@pc.lgibm.co.kr, +82-2-3284-1583

KRNIC PR: 박찬기, han@nic.or.kr, +82-2-2186-4500

###